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9. 1. Vol 256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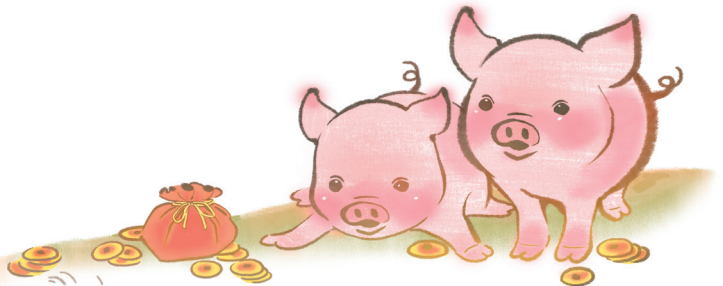
황금돼지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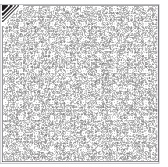
산허리 돌아
비탈길 동산기슭에
강물보다 맑고
바다 보다 더 맑은 작은 웅달샘 물에
가슴에 잠긴 작은 소망처럼
己亥의 태양이 비친다
억 만 번 뜨고 졌음에도
다시 뜨면 신성한 태양이
오늘따라 눈부시고
상서로운 조짐은
다산의 상징이요
부의 상징 때문이 아니겠는가
보라! 동산에 떠오른 찬란한 태양
보인다! 설레임으로 부푼
떨리는 無限한 희망의
포부여



반영호

- 음성출생
- 「부산일보」 신춘문에 당선
- 충북문인협회장, 음성예총회장 역임
- 저서 : 「별빛 그 찬란함이어」 등 15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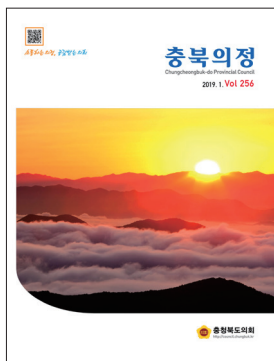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9. 1. Vol 256

Contents



월악산 일출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에 걸쳐 있는 산이다. 국립공원으로, 구역 대부분은 제천시 남부 지역인 한수면, 덕산면 지역에 해당된다. 높이는 1,097m이다.

- 04 | 신년사
- 05 | 2019년도 의회 운영방향
- 06 | 충북도·도교육청 새해 예산 확정
- 08 | 제369회 정례회 주요내용
- 09 | 쌀 목표가격·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 촉구 건의문
- 10 | 토론회(KTX호남선철도 직선화·KTX세종역 신설 반대 촉구)
| (생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 방안)
- 11 | 의원 연구활동(단재사상 및 충북 독립운동사)
|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혁신방안)
- 12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13 |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 20 | 제369회 정례회 주요 처리의안
- 22 | 대집행기관 질문
- 24 | 5분 자유발언
- 27 | 국외연수 결과 보고회
- 28 |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 의정논단

- 발 행 일 : 2019년 1월
- 발 행 인 : 충청북도의회 의장 장선배
- 발 행 처 : 충청북도의회
- 구독신청 :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 (043) 220-5123 · F A X : (043) 220-5119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buk.kr>



163만 도민과의 행복한 동행

충북도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며, 지역 곳곳마다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11대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7월 ‘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의회’를 기치로 힘차게 출발해 ‘소통·견제·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변화하는 의회, 역동적인 의회를 구현하고자 온 정열을 쏟았습니다.

이제 충북도의회는 또 다른 각오로 새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다시 한 번 가슴깊이 새기며 도민의 행복과 충북미래를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로 민의를 대변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주요 정책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중심·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민생현장에 한걸음 더 다가가 도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강호축 개발 국가계획 반영,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KTX오송역 활성화 등 현안해결에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방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등과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11대 충북도의회는 이러한 청사진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신년화두를 ‘민의동행(民議同行)’으로 정하고,

도민 삶과 충북미래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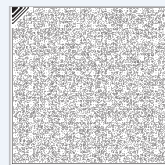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아침

충청북도의회 의장 **장 선 배** 드림





도민과 함께 하는 민의동행(民議同行) 의정 실현

집행부 견제·감시·협력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기치로 출발한 제11대 충북도의회는 기해년(己亥年) 새해 신년화두로 ‘민의동행(民議同行)’을 선정했다.

민의동행(民議同行)은 ‘도민과 도의회가 함께 길을 간다’는 의미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의회가 도민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는 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도의회는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위한 청사진으로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로 민의 대변 △민생중심·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강호축 개발 국가 계획 반영 등 지역 현안 해결 앞장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으로 정하고 모든 힘과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각오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1대 충북도의회는 내부혁신과

개혁을 추진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협력하며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의원 국외연수를 혁신하여 전국 모범사례라는 찬사를 받았고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원 징계 규칙을 강화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급식비 문제로 대립했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을 중재해 무상급식 전면시행의 물꼬를 텄고,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문 채택, KTX오송역활성화 특위 구성 등 지역현안에도 적극 대처했다.

올해는 ‘민의동행’의 화두아래 더욱 더 도민과 소통하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장선배 의장은 “변화와 쇄신을 통해 2019년을 ‘민의동행’을 실천하는 원년으로 삼아 도민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2019년도 연간 회의 운영계획]

월 별	회 기	회의일수	주요예상안건	비 고
1월 임시회 (제370회)	1.17.(목)~1.29.(화)	13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안전심의	- 설 연휴(2.2.~6.)
3월 임시회 (제371회)	3.6.(수)~3.15.(금)	10일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전심의	- 3·1절(3.1) - 결산검사
4월 임시회 (제372회)	4.17.(수)~4.30.(화)	14일	안전심의	
6월 정례회 (제373회)	6. 10.(월)~6.24.(월)	15일	201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전 심의	- 현충일 - 도민체전
7월 임시회 (제374회)	7.9.(화)~7.19.(금)	11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안전 심의	
8~9월 임시회 (제375회)	8.29.(목)~9.10.(화)	13일	2019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안전 심의	- 무예마스터십 - 중국인유학학생페스티벌
10월임시회 (제376회)	10.16.(수)~10.25.(금)	10일	안전심의 - 행감서류제출 목록, 출석증언 의결(상임위별)	- 개천절, 한글날 - 화장품뷰티엑스포 - 전국·장애인체전
11월~12월 정례회 (제377회)	11.8.(금)~12.20.(금)	43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추경예산안(도, 교육청) 2020년도 예산안(도, 교육청)	- 대입수능(11. 14.) - 성탄절(12.25.)
누 계 : 8회/129일(임시회 6회, 71일 / 정례회 2회, 58일) ·상반기 : 4회/ 49일(임시회 3회, 34일 / 정례회 1회, 15일) ·하반기 : 4회/ 80일(임시회 3회, 37일 / 정례회 1회, 43일)				

※ 의회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369회 정례회를 열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2019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충청북도 새해 예산

충청북도 2019년도 예산 4조5789억원 확정

도민안전보험 사업 등 전년대비 3979억원 증액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는 2018년 12월 실시한 제369회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북도의 2019년도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도의회는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지난해보다 3979억원 증액된 4조578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 증가한 4조4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9% 증액된 5309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보다 1.5%인 125억원이 증가한 8295억원으로 편성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진행된 예산종합심사에서 2019년도 충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양성평등정책워크숍 등 40개 사업 53억3552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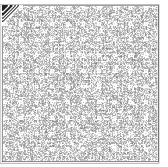
<충청북도 2019년도 새해 예산>

(단위: 억 원)

회 계 별	제출예산액	계수조정결과		확정예산액
		증 (내부유보금)	감	
총 계	45,789	54	54	45,789
일반회계	40,480	53	53	40,480
특별회계	5,309	1	1	5,309

특별회계는 소방본부 통합홈페이지 구축 1억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점위생등급제 추진 사업 1500만원을 삭감하여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내부조정했다.

특히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서로 다른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기관의 합의문을 요구하며 심사를 무기한 보류했으나, 지난해 12월 10일 양 기관이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합의문을 작성해 제출함에 따라 2019년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되어 충청도에서 부담할 식품비 69억원을 증액 요구했으며, 향후 양 기관의 공통사업은 미리 협의·확정하여 도민들의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라고 주문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내역을 존중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부실한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한 확대 해석 자제와 법적 안정성을 토대로 계상할 것을 요구하고, 계획성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구상

단계부터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또한 각종 도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재정상황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지원을 촉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내 소외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과 투자확대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기금심사 시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으로 재원증대를 통한 안정적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도 충청북도 재정운용의 경상경비 최소화과 투자재원 극대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새해 예산

도교육청 2019년도 예산 2조6903억원 확정

유치원스프링쿨러 설치 등 전년대비 1571억원 증액

충북도의회는 충북도교육청의 2019년도 새해 예산을 2조6903억원으로 확정했다.

충북도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충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6.2%인 1571억원이 증액된 2조6903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세출예산안 중 계약제교원인건비 등 총 19개 사업에 47억756만6000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주요 삭감내역은 충북교육 영화관 홍보 6069만원, 계약제교원인건비 30억원,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 용역비 3000만원, 놀이문화기반조성 1000만원, 고등학교 수강신청프로그램운영비 1억1500만원 등이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적정성 여부를 따져 꼼꼼히 처리했다는 평가다.

도의회는 심사에서 해마다 정리추경 시 과다 편성된 인건비를 감액하고 있는 점,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

<충청북도교육청 2019년도 새해 예산>

(단위 : 억 원)

회 계 별	제출예산액	계수조정결과		확정예산액
		증 (내부유보금)	감	
교 육 비 특별회계	26,903	47	47	26,903

고 과다 계상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면서 앞으로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충청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또한, 도의회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도민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소외된 지역 학교에 더욱 더 세심한 배려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369회 정례회를 열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제369회 정례회

충북도·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등 현안처리

제3회 추경예산안·2019년도 새해 예산안 의결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4일간의 일정으로 제369회 정례회를 열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새해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현실에 맞는 쌀값 책정과 PLS제도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민생관련 안건들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고 상정된 부의안건들을 의결했다.

또 이수완 의원이 대집행기관질문을 실시해 △혁신도시 시군2 △청주공항 활성화 △강호축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이어, 허창원·황규철·임영은·오영탁·최경천·전원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재개발, 지방정부가 나서야' 등을 주제로 주요 현안사항들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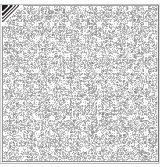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29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북도

지사와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10건의 안건과 산업경제위원장이 제안한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오영탁·이상정·박형용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성 고려와 안배' 등을 주제로 현안사항들에 대한 시정·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실시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2019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들을 의결하고 허창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관광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21일 실시한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하고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의결하며 2018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 건의문

“쌀값 24만원 책정·PLS제도 시행 1년 유예” 요구

충북도의회는 11월 29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산업경제위원장이 제안한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및 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중앙 관계부처에 이송했다.

도의회가 이번에 채택한 건의문은 쌀값 목표가격 80kg기준 24만원 책정과 PLS제도 시행의 1년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농업·농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의 생산성 저하와 정주여건 미흡 등의 다양한 농촌 현실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외국산 수입 농축산물들이 우리 식탁을 점령함에 따라 농민

들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젊은이들의 이촌향도(離村向都)로 농업·농촌은 해가 갈수록 피폐해져가고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에는 고령의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들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현실적인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된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시행을 1년간 유예해 달라”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

농업·농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의 생산성 저하, 정주여건 미흡 등 다양한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쌀 목표가격 정부안을 보면 18만8192원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가격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는 쌀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쌀 목표가격은 주식인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현실적인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24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밥 한 공기의 쌀값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300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

행될 예정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현재 제기되는 농업분야의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민을 위해 국회와 정부 등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24만원으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PLS 시행 전에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약의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 많은 품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PLS 제도 시행은 농약 허용품목 등록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8년 11월 2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도의회 특위, 청주시의회 특위·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와 토론회 개최

“KTX호남선 직선화·KTX세종역 신설 백지화하라” 강력 촉구



충북도의회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는 청주시의회 특위,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연결흠)는 청주시의회 특위,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청주시의회 특위 회의실에서 합동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합동 토론회는 호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 경우 호남선 KTX 직선화 및 KTX 세종역 신설추진 반대, 충북선철도 고속화 및 KTX 오송역 활성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논리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토론회에 앞서 도·시의회 특위와 범도민비상대책위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여 호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세종경우 호남선 KTX 직선화 및 세종역 신설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의회 특위와 범도민비상대책위는 합동 토론회에서 마련된 대응 논리와 전략 등을 바탕으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세종경우 호남선 KTX직선화 및 세종역 신설을 저지하고 KTX오송역 활성화와 충북선철도 고속화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연결흠 도의회 특위위원장은 “비장한 각오로 충북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KTX 오송역 활성화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환경소방위, 충북발전협과 ‘생태공동체 활성화’ 토론회

“대청호 상·하류 주변의 생산자층과 소비자층의 연대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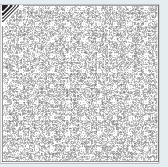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생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는 지난해 11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충청북도 생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태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방향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생태공동체를 구성하는 생물종, 서식지 등의 생태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한국교원대 남영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박현수 사무처장(충북도 생물종 현황과 문제점), (사)두꺼비와 친구들 신경아 사무처장(도시 숲의 가치), 충북연구원 배명순 선임연구원(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공동체 활성화 방안)의 주제발표에 이어 도의회 윤남진 부위원장, 충북대학교 김재용 교수, 황새생태연구원 김수경 선임연구원, 충북숲해설가협회 이상태 사무처장, 충청매일 김정애 부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남영숙 교수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살아야한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충북도, 청주시,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연구모임, 단재사상 및 충북독립운동사 연구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및 기념사업 조례 제정 추진



충북도의회 의원 5명이 연구모임을 결성해 '단재사상 및 충북독립운동사'를 3개월간 연구하고 지난해 12월 14일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도의회 '단재사상 및 충북독립운동사' 연구모임이 12월 14일 3개월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단재사상 연구와 도내 독립운동 전반의 역사 고찰을 통한 애향심과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의

대표적 인물을 통한 자긍심 확립과 독립운동 유적지의 관광연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을 앞두고 항일의병활동 관련 사적지에 대한 관리보완과 추가조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이상식 의원을 대표로 김기창·박형용·서동학·송미애 의원 등 5명의 도원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그동안 연구결과를 통해 충북도내 사적지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조례 제정과 연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도내 독립운동가는 512명으로 전국 3.1운동과 의병계열 포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독립운동사적지는 139개로 전국 4위에 이르지만 현충시설은 고작 4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기록원 자료에 충북의 미포상자 관련 판결문이 238명분 396건으로, 약 146명 정도에 대한 추가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임은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타당성 확보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혁신연구회, 충북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혁신방안 연구

마스터플랜 수립·컨트롤 타워 역할 담당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절실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7일 '의원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서울북부병원을 방문해 우수사례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의원 연구단체인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혁신연구회(대표 박상돈 의원)'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혁신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혁신연구회는 도내 공공의료 시설들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자료를 기초로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현황과 지원 체계를 검토했다.

또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소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서울 북부병원을 방문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구성·운영 실태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 영역을 하나로 묶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301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충북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7일 부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담당자, 도내 관련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상돈 의원은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도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정·교육시책 현미경 분석… 고강도 사무감사 실시

시정·개선요구 116건, 건의·촉구 371건 등 지적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본청과 직속기관,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사무처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되도록 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고 확인하는 등 감사규정에 따라 심도 있게 진행됐다.

도의회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간담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심사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도의회는 1421건의 감사 요구자료 분석과 현장확인, 연찬회 등을 토대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67개 기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사업과 시책사업 등을 집중 추궁하여 시정·개선요구 116건, 건의·촉구 371건 등 모두 48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최근 3년간 의정모니터단의 저조한 운영 실적을 지적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진단하여 존치여부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입법·법률 고문의 자문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 고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실시율과 성인지에 산 사업 추진 여부를 부서별 주요업무평가(BSC)에 연계하여 모든 부서가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성과 평가 지표에 반영할 것과 '9988행복나눔미'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과 충북문화유산 및 충북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방안 및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충북의 인권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인권정책

■ 각 위원회별 지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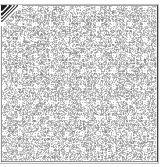
위 원 회 별	계	시정·개선	건의·촉구
의회운영위원회	6	1	5
정책복지위원회	138	32	106
행정문화위원회	39	16	23
산업경제위원회	161	36	125
건설환경소방위원회	53	6	47
교 육 위 원 회	90	25	65
계	487	116	371

전문가 충원 및 인권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검토할 것과 시·군별 태양광 관련 조례가 일관되지 않아 도민들의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시·군 조례 제·개정시 사전에 적극 검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조속한 시일 내 투자유치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폭염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된 만큼 충북도의 단편적, 일시적 대책이 아닌 폭염대비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추진과 관련한 정부예산 확보 노력, 충북청주전기관 건립 투자계획, 가동률 방안, 운영문제 등을 철저히 준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신명학원과 관련 운동부 상시합숙 중단과 교권 침해 방지, 학교 운영에 재단의 개입 차단 등을 검토할 것, 스쿨 미투와 관련해 학생, 교직원 대상 성폭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사건발생 기관에 대해 무기명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보호조치 강화와 관련 아동학대 인지를 향상을 통한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통한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요구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6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연구용역 결과물 등 체계적 관리·활용 촉구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제369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지난해 11월 9일 실시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시정·개선요구사항으로 의정모니터단의 존치여부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건의·촉구사항으로는 △입법·법률고문 적극 활용 △지역 언론사에 의정활동 보도자료 제공 △연구용역 결과물의 체계적 관리·활용 △광역·기초의원 간 교류의 장 마련 △예산안 편성 시 성인지 사업 적극 발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수당 626만5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11월 29일에 실시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여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을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에 걸쳐 129일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세입예산은 의원휴게소 매각대금 4억2000만원이 계상됐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6%인 9억8379만8000원이 증액된 112억2685만9000원이 계상됐다.

의회사무처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진행된 이날 심사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연구활동 지원, 노후장비 교체, 의회전문성 제고 및 의회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특위활동 지원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6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성인지 예산 확대 등 요구



위원장
박상돈 의원



부위원장
박형용 의원



심기보 의원



육미선 의원



이상욱 의원



최경천 의원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6일 충주의료원을 방문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설을 확인하며 공공보건의료 실태를 점검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현안을 심사·의결했다.

또,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소관부서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성,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성인지 예산 확대운영 등 총 138건을 도출해 시정·건의·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3일 실시한 「2018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심사에서는 도정학술용역의 매년 반복되는 명시이월 사유와 예산심사 자료의 형식적인 작성 등을 지적하며 신중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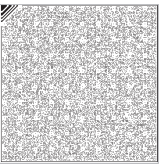
또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지원

근거가 미비한 사업과 도정정책자문단 및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저조 등을 지적하고, 전체사업 중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액이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판단되는 총 17개 소관 부서 사업에 34억2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위원회는 또 박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이어 육미선 의원과 심기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이상욱 의원과 최경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과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6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마을기업 및 보조사업 철저한 사후관리 주문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원표)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369회 정례회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또한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행정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에 대한 효과여부를 질문하고 충북관광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이어 MICE 산업 전략과 청남대 부속시설의 차질 없는 관리를 주문했다.

또 마을기업 육성이 농촌의 활력을 위한 사업임에도 특정 귀농인 이익을 위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북도와 해당 시·군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감사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도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운영

수당이나 실비가 현실화 돼야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이 보호돼야 하며, 시민 등의 외부제보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문화재단 운영과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의 관리 실태와 개선계획을 묻고 조속히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북이 가진 문화유산과 세계유산이 제대로 활용·보존·관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문화유산을 활용·홍보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조속히 기획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도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법주사 관광활성화 정책과 충북도 지정예술품 운영상황을 질문하며, 편향적인 공연 지양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6건의 시정·개선요구와 23건의 건의·촉구사항을 도출해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위원장
전원표 의원



부위원장
허창원 의원



송미애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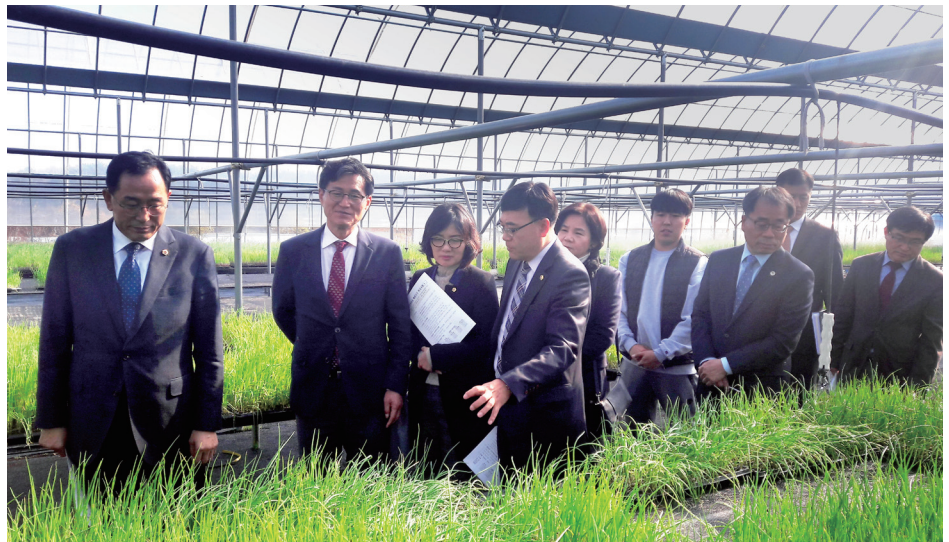
연철흠 의원



이옥국 의원



정상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옥천군에 위치한 마을기업과 과학영농특화지구 현장을 방문해 시설들을 점검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6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농업·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촉구



위원장
박우양 의원



부위원장
임영은 의원



박문희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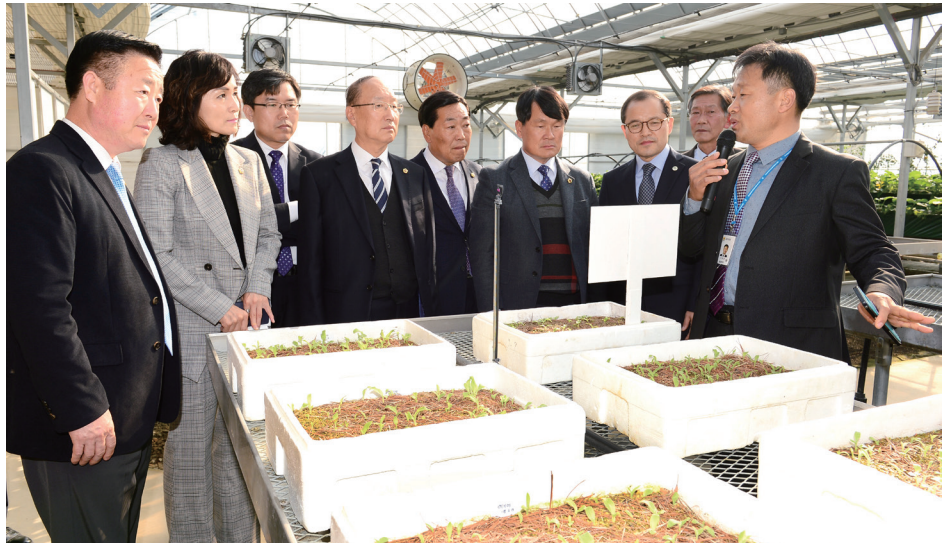
이상식 의원



이상정 의원



하유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14일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식물번식 및 신품종 개발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현안을 심사·의결하고, 논산계룡축협이 운영하는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를 견학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8개부서 373건의 감사요구 목록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진행했다.

경제분야에 대한 감사에서는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조기공급’,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도 차원의 조례 제정’,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상호 협조’,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촉구’ 등 충북도 경제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농정분야에서는 ‘충북의 토종소인 칠포 보존 및 활성화 대책 마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도비 보조율 인상방안 강구’, ‘균형 있는 미래 첨단농업 기반 구축 사업 추진’, ‘우리도의 특성에 맞는 농업분야 사업 발굴 촉구’등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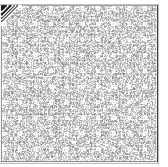
한 도정운영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3일 실시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신규계상 사업의 효율성과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며 철저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블록체인 관련 예산과 전통시장 활성화,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개, 해외 전략시장 통합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요구 목적과 집행계획등을 꼼꼼히 따졌다.

이어 농정분야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 산모 친환경 농산물 꾸러기 지원, 귀농인 지원 정책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안들을 심사하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11월 21일 충남 논산계룡축협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를 방문해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악취가 심한 각종 폐기물을 바이오가스로 변환해 재활용하는 시설들을 견학하고 충북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제36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주요 사업현장 점검 철저한 사후관리 등 당부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는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또 ‘충청북도 생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의정학술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주요쟁점 사항으로 3단계지역균형발전사업의 문제점 분석, 적치장 확대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미불용지로 인한 소송 등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12일 음성군 삼성면을 방문해 대소~삼성 간 도로확포장 공사 진행상황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청취한 후 관계자

들을 격려하고, 괴산군 청천면 농어촌도로 305호선(거봉교) 수해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해 꼼꼼히 점검하며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12월 5일과 12월 6일 이틀간 실시한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도민안전의식 증가를 위한 소소심 교육추진, 재난안전체험관 예산확대, 소방헬기 도입 및 관리, 안전관리 지침서 홍보, 도민안전보험 가입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전조사로 계획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 지난해 11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충청북도 생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생태공동체를 구성하는 생물종, 서식지, 도시 숲, 지역 환경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도출하고, 지난해 12월 14일 ‘의정학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진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위원장
이수완 의원



부위원장
윤남진 의원



김기창 의원



박병진 의원



연종석 의원



오영탁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 ‘2018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음성군 삼성면 대소~삼성 간 도로확포장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교육위원회

제36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직속기관·교육지원청에 실질적 권한이양 촉구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 충청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장
이숙애 의원



부위원장
서동학 의원



김영주 의원



박성원 의원



이의영 의원



임기중 의원



황규철 의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7일간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과 각종 언론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스쿨미투 관련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법정 기준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 확대, 학교 공기청정기 사용 내부 규정 마련 등 2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해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또 충북도교육청 소속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권장 및 확대시행, 충북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내부 불만 최소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 되도록 추진할 것 등 65건에 대해 건의·주

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실시한 제2차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실시한 제3차 위원회에서는 「2020년 9월 학교(가칭 동남1초, 동남1유)설립 계획안」,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충북도교육청이 전년도 예산대비 6.2%인 1570억9424만7000원이 증액된 2조 5332억631만5000원을 계상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수립의 타당성 부족하고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세심한 점검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12건에 42억5051만1000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연종석)는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6차례 위원회를 열어 충청도지사와 충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지난해 11월 27일에 열린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544억원이 증액된 4조59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57억원이 증액된 5139억원으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 지난해 11월 28일에 열린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2조8305억원, 기정대비 193억원 증액)'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7일부터 실시된 제4차, 제5차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제출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8.9%인 3327억원이 증액된 4조4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3.9%인 652억원이 증액된 5309억원이고, 기금운용계

획안은 총 14종으로 전년대비 1.5%인 125억원이 증액된 8295억원이다.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실·국장들의 답변 후 이어진 계수조정에서 일반회계는 양성평등정책 워크숍 등 총 40건에 53억3552만원이 삭감됐고, 특별회계는 소방본부 통합 홈페이지 구축 1억원이 삭감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됐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음식점위생등급제 추진 1500만원을 삭감해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조정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69억원을 증액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2일에 열린 제6차 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6.2%인 1,571억원이 증액된 2조6903억원으로, 충북교육 영화관 홍보 6069만원, 계약제교원인건비 30억원,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 용역비 3000만원 등 총 19개 사업 47억756만6000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연종석 위원장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제369회 정례회 주요 처리의안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박형용 의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8.9.21.)에 따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치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심기보 의원)

-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용도 및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을 개정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육미선 의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 개정(2018.9.21.)에 따라 용어·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현황 보고의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약칭 사용 및 일부용어를 정비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옥규 의원)

-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건축물 철거를 지원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속한 정비를 유도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상돈 의원)

-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고 불필요한 약어 표기를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육미선 의원)

-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2018.9.21.)에 따른 용어 개정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상욱 의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부 용어, 문구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 (대표발의 : 오영탁 의원)

- 상위법령인 「지하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연철흙 의원)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경천 의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명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임영은 의원)

-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지원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업무 추진시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김기창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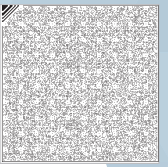
- 충북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두는 지역인재채용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수완 의원)

- 기존에 운영되었던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충청북도 혁신도시 시발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오영탁 의원)

- 충청북도 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 규정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대표발의 : 송미애 의원)

- 충청북도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숙애 의원)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 의회운영위원장)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정비(월정수당)를 조정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충청북도 도정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자문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개편하고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저출산 대책 업무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제2충북학사 건립으로 3개 학사(서울2, 청주1)의 명칭 통일 및 도민 이용 편의 등을 위해 학사시설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으로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제출 : 충청북도지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반영하고, 우리도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 연중석 의원)

-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 임기중 의원)

- 충청북도 학생의 자살예방 교육 및 지원체계 마련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생명존중의식 함양과 자살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충청북도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제조업 경기악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수요 창출이라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지원하여 첨단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제출 : 충청북도지사)

-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전국7개 도립대학 중 전남도립대학을 시작으로 강원도립대학까지 4개 도립대학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한시지구인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 종료(2018.12.31.까지)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020년 9월 학교(가칭 동남1초, 동남1유) 설립 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개발지구 공동주택 입주학생 배치 등 학생·학부모 교육여건 개선 위한 학교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해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이 수 완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혁신도시 시즌2

청주공항 활성화

강호축 관련



혁신도시 시즌2

Q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그 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향과 충청북도의 대응방안,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하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1월 마련하여 4대 전략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택시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시외버스·순환버스 운행횟수를 확대했고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집중단속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설치를 추진중이며,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했고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다목적기능의 복합혁신센터, 어린이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물놀이장 등도 확정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교통신호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겠으며, 태양광 허브테마공원 등 테마형 주민친화 생활공원 조성과 스마트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협력학교인 서전고 모델을 초·중학교로 확대 하도록 하며, 유치원·초등학교 등이 계획대로 개교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추진방향과 충청북도의 대응방안은 지난해 2월 1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향을 보면 ‘혁신도시의 신 지역성장 거점화’를 비전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등 5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혁신도시 시즌2’에 대응하여 도 차원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4대 전략분야 65건의 추진과제를 선정했고, 향후 5년간 636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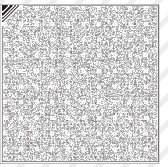
Q 민·군복합활주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계획,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설립 등 국제노선 다변화에 대한 노력, 향후, 저비용항공사(LCC) 여객 운송 확대에 따른 공항 이용객 시설개선이나 편의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 도는 2015년 민항기가 군용활주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국방부에 군용활주로 포장강도 강화를 건의했는데 이를 수용해 현재 군용활주로 재포장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에 군용활주로의 성능개선이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활주로 이용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선 다변화와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감안 LCC전용 국제터미널 확충 등을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19년 만인 2016년에 처음



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선이 중국에 편중된 청주국제공항은 지난해 사드사태로 중국의 ‘한국관광 상품 판매금지’가 본격화되면서 2017년 국제선 이용객이 전년보다 69.7%가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국제노선 다변화 필요성을 실감하고, 국내·외 항공사를 방문하여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해외 여행사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노선유치를 노력한 결과, 올해 일본 오사카·후쿠오카, 미국 괌, 대만 타이베이 4개 노선을 신규로 유치하여 중국 일변도의 국제노선을 어느 정도 탈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은 국제선 터미널 증축과 활주로 갯길 포장, 평행유도로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금년 주차빌딩 신축, 내년 국내선 터미널 증축, 군용 활주로 재포장, 주기장 확장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거점항공사 유치, 노선 다변화 등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공항시설 확충과 이용객 편의시설 개선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호축 관련

Q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강호축 발전의 필요성, 강호축 발전을 위한 호남권·충청권·강원권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 동안 협의했던 내용과 활동 사항, 강호축 발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도 차원에서 노력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수완 의원

A 먼저, 강호축은 국가적 개발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원과 호남의 인적·물적·문화적 단절을 발생시켰습니다. 7차에 걸친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3차에 걸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4차에 걸친 ‘국토종합계획’속에서 강호축 개념이 반영되지 않아 경부축 대 강호축의 발전상은 8대 2 내지 7대 3 정도로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국토의 불균형적 개발을 극복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강원과 호남, 충청을 잇는 강호축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호축은 충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축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관광치유벨트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국민쉼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통해 강호선 고속교통망이 구축되면 명실상부 국가 X축 교통망의 중심으로 우리 충북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강호축 발전을 위한 호남·충청·강원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8개 시도지사가 함께 서명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강호축 의제의 확산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2차례 개최했고, 8개 시도연구원이 참여하는 강호축 종합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호축 8개 시·도는 강호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함께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하여 강호축 도민보고대회를 통해 당위성을 확산·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민여량을 결집해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전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중앙부처에서도 강호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강호축이 반영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정여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이시종 도지사

구도심권 낙후지역 재개발 지방정부가 나서야



허창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청주시는 저의 지역구가 포함된 구도심권 낙후지역 개선방법을 손쉬운 택지개발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최근에는 동남·방서지구 등에서 개발 사업이 행해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사회문제가 됐고 충북도 상당한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환경을 무시한 채 택지개발 방식으로만 도시개발을 한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주시에서 2007년부터 시작된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30여 곳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추진이 어려워져 14곳이 남았고, 그중 7곳이 사직동·모충동 일부지역에 몰려 있으며, 이곳의 예정분양 수는 약 1만5000세대에 이릅니다.

십수년간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며 사용한 조합비가 한 구역에 수십억~백억 단위까지 이르렀고 현재도 조합비를 투입하고 있어 조합비 폭탄은 현재진행형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도나 청주시는 신규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정비를 지양하고, 낙후된 구도심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주민과 같이 갈수 있다면 함께 가는 길이 진정한 행정일 것입니다.

충북교육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방안 촉구



항규철 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은 경쟁력 향상의 주요 메커니즘이자 사회적 성공과 사회계층의 이동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교육이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 이후 진행된 6개 군의 교육경비보조금 단절과 축소는 해당지역의 교육재정과 환경을 날로 악화시켜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운영 등 여러 교육 사업들이 중단·위축되며 지역 간 교육 불

균형과 교육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에 충북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오니 적극 반영·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6개 군을 포함한 도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북교육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교육 균형발전 특별재정을 확보하여 교육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간 교육 불평등과 교육양극화를 초래하는 법 개정과 정책개선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혁신도시 발전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해야



임영은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혁신도시 정착에는 건물,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이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만 충북혁신도시에는 각종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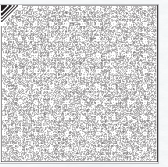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혁신도시별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충북혁신도시는 100점 만점에 40.9점에 불과했고, 전국평균 52.4점보다 10점 이상 낮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시종 지사님께서 지난 5월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구성하고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시고 있어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이시종 지사님께 두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정주여건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혁신센터 조기건립과 종합의료 및 관련시설, 관광인프라 구축, 교통망 확충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충북을 기대한다



최경천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충북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충북은 양적고용과 경제지표에서는 전국 광역시·도 중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의 질적 개선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경남·경북·대구·울산과 함께 충북은 아직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지역노동자들을 위한 조례 제정도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산업재해율과 노동자들의 사고·사망률은 안타깝게도 광역시·도 중 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충북도청 산하 노동자인 도로 보수원이 2017년도 기습적으로 내린 폭우에 무리한 긴급도로보수로 인해 사망했고, 2018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으나 산업안전장비 구입비용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충북지역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권리보호 조례 제정,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생활임금 조례 제정 등을 조속히 도입·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천화재 유가족 아픔 치유할 피해보상 추진되어야



전원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 12월 21일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29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제천화재 참사사고 유가족들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이 화재참사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목숨에 대한 가치가 금전적으로 보상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사회에 만연된 불

법과 탈법, 편법, 그리고 인명경시풍조가 빚어낸 참사에 대한 책임은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유가족 분들과 어떤 소통을 하셨습니까? 유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는 길이라면 당장이라도 팔을 걷고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제 충북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참사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를 만들고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에 성의를 다 함으로써 이들이 지난날의 아픔을 잊고 삶의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성 고려와 안배를



오영탁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음성·진천 등 전국 10곳을 혁신도시로 선정해 2007년부터 153개의 기관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충북도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유치전략을 세워 관련부처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는지, 충북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책무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면, 충북도의 책

무는 도내 균형발전입니다.

저발전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양지역과 같은 소외된 지역에서는 관광활성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양군은 충북의 대표적 관광도시로 2017년에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2018년부터는 2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단성생태공원 조성사업’, ‘느림보생태탐방길 조성사업’ 등의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확대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AI 휴지기제 사업 확대 시행해야



이상정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매년 겨울이면 AI 발생으로 가금농가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지역사회·경제는 대규모 방역인력 투입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충북도는 이 같은 재해와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을 선도하며 ‘겨울철 AI 휴지기제’ 사업을 실시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충북도의 경우 사업시행 전 AI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 및 매몰비용 등으로 총 304억원이 소요된 반면, 2017년 11월부터 실시한 ‘겨울철

AI 휴지기제’ 기간에는 19억5000만원 만이 소요됐습니다.

충북도는 올해도 ‘겨울철 AI 휴지기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행히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2018년도부터는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행대상이 도내 전체 오리 사육농가의 41%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는 30% 밖에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겨울철 AI 휴지기제’ 시행을 축산단체의 요구대로 현재 참여하는 61농가의 41%수준에서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다발생 지역에 대한 ‘휴지기제’ 기간을 5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교무상급식·친환경 농산물 급식 민·관 협치로 풀어야



박형용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충북도는 지난 2011년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 주목을 받았지만 2018년 3월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대비 전국 평균 급식률(82.5%)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와 삶의 질 증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이며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과 맞물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방법, 시기, 재정분담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 분담률 등에 대한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의 합의과정을 살펴보면 기관중심의 협의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관 협치가 제대로 작동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고등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 문제도 민·관 협치로 풀어내시기를 촉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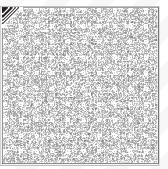


163만 도민과의 행복한 동행

민의동행 民議同行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도의회 교육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회 개최

세심한 검토·알찬 정보수집 등 전국 모범사례로 찬사 받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회’를 실시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지난해 11월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교육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번 국외연수 보고회는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해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충청도교육청의 주요시책인 ‘행복씨앗학교와 민주시민교육’의 선진국인 덴마크와 독일을 연수하고 돌아온데 따른 것으로, 장선배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도교육청 관계관 및 교직원, 시민단체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개최된 보고회는 △국외연수 대상국 선정 및 계획수립 과정 △국외연수국인 덴마크와 독일교육에 대한 정보수집 및 사전연수 △국외연수 현지기관 방문현황 △의정활동 반영 및 충북교육 발전방향 제안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개인별 연수후기 등을 발표하며 혁신적인 전국 모범사례라는 호평을 받았다.

발표를 맡은 이숙애 위원장은 “추진계획부터 연수주제 선정, 연수대상국 및 기관방문, 연수방법 등에 대해 세심히 검토하고 연수가 끝날 때까지 신중을 기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국외연수였다”며 “이번 국외연수 보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평가를 토대로 보다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제1회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 개최

충북미래 이끌어갈 청소년들 ‘올바른 토론문화’ 선도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충청북도의회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는 지난해 12월 1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회 충청북도의회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는 청소년들이 의장 후보

가 되어 도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도민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 정견 등을 발표하는 자리로, 올바른 토론문화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제11대 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시책이다.

이번 선발대회에는 중등부 8명과 초등부 7명 등 15명의 발표자를 비롯해 교사·학부모·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지난해 도의회가 실시한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발표했던 경험을 살려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의회 △어린이들의 꿈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공약 △행복한 학교생활을 원하는 친구들의 의견 등을 모아 자신의 의견을 펼쳤다. 도의회는 이날 최우수상 2명, 우수상 5명 등 총 7명에게 도의회 의장상을 수여했다.

장선배 의장은 “학생들이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민주시민으로 바르게 자라겠다는 확신과 희망을 갖게 됐다”며 “도민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정책과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내실 있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자체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안을 협의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립 교향악단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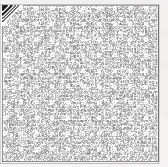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1일 논산계룡축협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를 방문해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을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재활용 하는 시설을 견학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 ‘2018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괴산군 청천면 농어촌도로 305호선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청주교육지원청 Wee센터, 진로교육원, 마음 건강증진센터 등을 방문해 현황을 듣고 시설들을 점검했다.



충북도의회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강호축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결정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를 실시했다.



충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대변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중재 노력을 기울여 양 기관의 합의를 이끌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스피치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송미애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앞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활동'을 실시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연철홍 대표는 지난해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협의회가 주체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해찬 당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위원장 등과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육 미 선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평등을 일상으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법’을 잃었다.

여성과 남성이, 아동·청소년과 성인들이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가부장제의 낡은 규범은 사라지고 있지만, 새로운 방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평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관계 맺는 법을 우리 모두 힘들게 배워가고 있다.

정의롭고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성평등이 나라 안팎에서 커다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 미투운동, 불법촬영·유포에 반대하는 시위, 외모 평가와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의 움직임, 낙태죄 폐지 운동 등 일상에서 여성들이 겪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남성 위주의 불평등 사회였음을 역설하는 반증이며 올바른 성평등의 세상으로 나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경제활동 참여 면에서 커다란 개선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정치·경제적 주요 의사결정 지위로의 진출에 유리천장이 견고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기준 전국 시·도별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에 따르면 4개 등급 중

충북은 중하위지역(3등급)으로 조사됐다.

특히 8개 분야별 현황 조사에서 경제활동만 우수하고 △의사결정 10위 △교육직업훈련 11위 △복지 8위 △보건 13위 △안전 10위 △문화·정보 10위로 성평등지수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또한, 전국 7399명을 방문면접 조사한 결과 여성의 85%, 남성의 72%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인권과 지위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인프라 등 기반 구축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여성들이 가정, 직장, 사회전반 등 일상 속에서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녀 모두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평등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는 중요한 열쇠다.

지역사회의 모든 현안이 성인지적인 시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의지를 갖고 활동하는 의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성평등을 위해 타오르는 지금의 ‘불꽃’을 제도와 문화라는 ‘등불’로 만드는 일,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이 할 일이다.

‘희망찬 충북 · 성평등 공감 충북’ 실현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한 충청북도를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



“충북교육·지역발전 견인할 행복교육지구 사업 활성화 되어야”



박 성 원 의원
(교육 위원 회)

학교·지역사회, 교육행정·일반행정 간의 연계·협력력을 통해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요구가 확산되며 마을교육공동체가 새로운 교육기조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충북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충북형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17년도 첫 사업추진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충북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그러나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지속가능한 충북형 마을교육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공감대 확대, 충북교육청과 충북도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 간 견고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또 합의된 사업목표와 사업추진 방법 등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협약,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킹 활용 강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도적 근거 마련 측면에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충북도내는 물론 서울, 부산 등 타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현장방문,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검토하고 고민했던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청, 지자체와 지역주민, 학생과 학부모 간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 발전방향 및 비전에 대한 합의와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론회, 공청회,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의미와 가치, 목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관련 기관·단체나 개인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청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도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확보와 유기적 교류와 실효성 있는 협력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청 간의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충북의 교육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추동력이 되도록 두 사업간 협력체계와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셋째, 행복지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행복지구 또는 충북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측면에서 본의원은 충북교육청과 함께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교육지구가 지역교육과 지역발전, 지역주민의 지역사랑과 공동체의를 높이는 견인차가 되길 바란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220-5159

방청안내

■ 방청 신청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신청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실)에서 방청권 교부
- 의사담당관실 : ☎ 043)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충청북도의회 인터넷방송 : <http://assembtv.cb21.net/>
- 트 위 터 : https://twitter.com/chungbuk_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